

연구논문

# 영조 대 선천인에 관한 연구

---

이남옥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조선시대 사상사 전공

koman82@koreastudy.or.kr

---

I. 머리말

II. 영조 대 『선전관청천안』 분석

III. 영조 대 선천인의 관료 분석

IV. 맺음말

---

## I. 머리말

선전관(宣傳官)은 세조(世祖, 1417~1468) 대 왕의 시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정비되어 시위, 입직, 군사 관련 왕명 출납 등을 수행하며 서반 승지로 불렸으며, 서반직 중 대표적인 청요직으로 꼽혔다. 하지만 『경국대전』에서부터 체아직으로 운영되던 선전관은 『속대전』에서야 정3품 정식 아문으로 성립되었다.<sup>1</sup> 특히 『속대전』에는 각 군문의 선천인 초관으로 6품으로 승진한 자를 의망하여 훈련원 주부로 차출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다.<sup>2</sup> 이는 곧 영조(英祖, 1694~1776) 대에 이르러 선전관과 선천 제도의 법적 체계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전관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립, 임무, 지위, 선전관청의 운영과 기능, 무반 별열화 과정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sup>3</sup> 반면 선천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립과 운영, 서반 진출 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사업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4-CO8).

- 『續大典』, 「兵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軍營衙門」, “[【增置】宣傳官廳]. 大典番次都目 只有八員 後爲正職 增員設廳. ○親功臣子 除取才. ○參上調遷時 一從曾經職本品. ○參外二窠 武臣兼參外一窠 每都目 禁軍中薦取才者 擬差. ○參外 竝仕滿七百二十 陞六品”.
- 『續大典』, 「兵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訓練院」, “正 曾經內·外三品後 通擬. ○參外官 用其次第 分屬軍器寺 由參奉·副奉事·奉事·直長而陞六品 又由參軍陞直長. 一年兩都目 每一人去官. ○權知病滿三十日及呈辭過限者 實官除授時越一次 過一年者越二次 過二年以上者越三次. ○主簿一窠 各軍門哨官宣薦陞六品者 擬差”.
- 박홍갑, 「朝鮮前期의 宣傳官」, 『사학연구』 41(1990), 119~145쪽; 안병일, 「조선시대 선전관청의 운영과 기능, 그리고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8-1(2014), 25~47쪽; 장필기, 「朝鮮後期 宣傳官出身 家門의 武班閥族化 過程」, 『군사』 42(2001), 253~280쪽; 정해은, 「조선 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 《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2008), 293~323쪽.

나,<sup>4</sup> 선천인의 사회적 배경, 무과 급제 양상, 그리고 이들의 관료에 대한 종합적 계량적 분석은 미흡했다.

총 5책으로 구성된 『선전관청천안』(청구기호 奎9758)에는 영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 선천인(1만 1,922건)에 대한 천거 일자, 천거 구분(출신천, 남향천 등), 인명, 부친 정보(인명, 관직), 거주지, 천주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선천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료적 기반을 제공한다.<sup>5</sup> 특히 긴 재위 기간 동안 선천 관련 규정이 법제화되고 많은 선천인 자료가 남아 있는 영조 대는 선천에 대한 이해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선전관청천안』을 기초 데이터로 무과 방목, 『승정원일기』 등과 교차 검증하여, 영조 대 선천인의 사회적 배경과 관직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장에서는 『선전관청천안』을 기초로 무과 방목과 교차 검토하여 선천 연령, 지역 분포, 성관 분포, 과거 합격 여부, 부친의 관직 등 선천인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특히 남향천과 출신천의 차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선천인의 관직 경로를 추적하고, 선천의 종류(남향천·출신천), 무과 급제 여부, 선전관 및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역임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관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영조 대 선천인이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관직 경로를 거쳤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4 윤혜민, 「숙종대 『선전신천안』을 통해 본 무관의 인사 운영과 관직 이동」, 『사림』 91(2025), 175~202쪽; 정해은, 「조선후기 선천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2001), 127~160쪽.

5 이 연구의 대상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선전관청천안』(청구기호 奎9758)이다. 총 5책으로 구성된 『선전관청천안』은 영조~고종 대 선천인에 대한 천거 일자, 출신천과 남향천의 구분, 인명, 부친 정보(인명, 관직), 거주지, 천주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선전관청천안』 1책에는 정조 대 1,147건, 순조 대 1,563건, 헌종 대 823건, 2책에는 영조 대 2,307건, 3책에는 철종 대 1,236건, 고종 즉위~12년 1,288건, 4책에는 고종 13~22년 1,480건, 고종 23~30년 2,078건이 수록되어 있다.

II. 영조 대 『선전관청천안』 분석

『선전관청천안』 2책에는 1725년(영조 1)부터 1775년(영조 51)까지 출신천(出身薦) 1,346건, 남향천(南行薦) 862건을 포함해서 총 2,307건의 선천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sup>6</sup> 영조 대 선천인은 30.2세에 무과에 급제했고, 30.3세에 선천되었다.<sup>7</sup> 대부분 급제한 해에 선전관에 천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평균 통계의 함정이다. 무과 급제 이전에 선전관에 천거되는 남향천과 급제 이후 선전관에 천거되는 출신천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남향천은 24.3세에 선전관에 천거되었고, 약 6년 뒤인 30.2세에 무과에 급제했다. 반면 출신천은 30.2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약 2년 뒤인 32.2세에 선전관에 천거되었다. 즉, 남향천과 출신천은 평균적으로 모두 30.2세에 무과에 급제했지만, 선천에 있어서는 남향천(24.3세)과 출신천(32.2세)이 약 8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남향천 중 가장 어린 나이에 무과에 급제한 인물인 신대겸(申大謙, 1746~1807)과 출신천 중 무과 급제부터 선천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인물인 신한조

표1-영조 대 남향천과 출신천의 무과 급제 평균 연령과 선천 평균 연령 비교 (단위: 세)

구분	무과 급제 평균 연령	선천 평균 연령	무과급제 - 선천
남향천	30.2	24.3	5.9
출신천	30.2	32.2	-2.0
전체	30.2	30.3	-0.1

6 『선전관청천안』 2책에서는 출신천(18건), 장귀천(1,328건), 남향천(862건), 부천(6건)으로 구분했다. 이 외에 천거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 93건이 있다. 출신천과 장귀천은 모두 과거 급제자를 대상으로 추천하는 것이므로 출신천으로 통일하여 분석했다.

7 현전하는 영조 대 무과방목을 통해 생년, 본관, 급제 등수 등의 정보를 추가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영조 대 생년을 알 수 있는 무과 급제 선천인 전체 475건 중 남향천은 113건, 출신천은 362건이다.

(愼漢朝, 1694~?)를 통해 남향천과 출신천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1746년(영조 22)에 태어난 신대겸은 1762년(영조 38) 6월에 16세의 나이로 남향천으로 선전관에 천거되어 그해 8월에 선전관에 제수되었다. 1763년(영조 39)에 내승(內乘)에 제수되었고, 1765년(영조 41)에 19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했다.<sup>8</sup> 이후 훈련원 주부·도총부 도사(1765년), 훈련원 첨정(1766년), 비변사 무낭청·훈련원 부정(1767년), 훈련원 정(1768년), 경원부사(1769년), 내금위장(1771년), 길주목사(1772년), 어영청 천총·전라우수사(1774년), 훈련도감 별장·홍주병사(1779년), 오위도총부 부총관(1780년), 삼군수군통제사·평안병사(1781년), 포도대장·훈련도감 중군(1782년), 북병사(1783년), 포도대장(1789년), 어영대장·총융사(1800년) 등을 역임했다.

신대검이 무관으로 이른 나이부터 좋은 관직에 나아가 고위직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7대조 신립(申瑬, 1546~1592), 6대조 신경인(申景禪, 1590~1643)부터 이어져 온 집안의 지벌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신립-신대검 가계는 “신립(문과, 순변사)-신경인(무과, 대장)-신해(생원, 도정)-신여철(무과, 병조판서)-신환(첨정)-신광하(무과, 대장)-신민(무과, 통제사)-신대검(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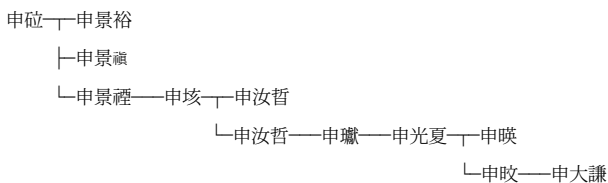


그림1-신립-신대점 가계 약도

8 신대점은 1765년 식년시 무과에서 전체 228명 중 93등으로 합격했다.

과, 대장)”으로 이어지며, 대부분 무과에 급제하고 고위 무관직을 역임했다.

한편, 1722년(경종 2)에 22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한 신한조는 22년 뒤인 1744년(영조 20)에 출신천으로 선전관에 천거되었으나 관직에 제수된 기록은 없다.<sup>9</sup> 대부분의 무과 급제자들처럼 변변치 못한 지벌로 인해 관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벌에 대해서는 선천인의 아버지 관직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sup>10</sup>

영조 대 선천인 아버지의 관직 및 직역(2,208건)은 통덕랑(627건, 28.4%), 유학(340건, 15.4%), 학생(276건, 12.5%), 부사(226건, 10.2%), 군수(96건, 4.3%), 병사(77건, 3.5%), 진사(68건, 3.1%), 현감(53건, 2.4%), 영장(47건, 2.1%), 수사(37건, 1.7%), 우후(24건, 1.1%) 순이다.

남향천 아버지의 관직 및 직역(862건)은 통덕랑(259건, 30%), 부사(118건, 13.7%), 유학(98건, 11.4%), 학생(71건, 8.2%), 병사(50건, 5.8%), 진사(32건, 3.7%), 군수(27건, 3.1%), 현감(26건, 3%), 수사(24건, 2.8%), 영장(22건, 2.6%), 선전관(15건, 1.7%), 통제사(9건, 1%) 순이다.

출신천 아버지의 관직 및 직역(1,346건)은 통덕랑(368건, 27.3%), 유학(242건, 18%), 학생(205건, 15.2%), 부사(108건, 8%), 군수(69건, 5.1%), 진사(36건, 2.7%), 병사(27건, 2%), 현감(27건, 2%), 영장(25건, 1.9%), 우후(21건, 1.6%), 수사(13건, 1%) 순이다.

통덕랑을 제외하면 남향천 아버지의 관직 및 직역에서 부사와 병사의 비중이 19.5%로 큰 반면, 출신천 아버지의 관직 및 직역에서는 유학과 학생의 비중이 33.2%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해 보자면 남향천과 출신천 모두 무관 가문 출신 비중이 크지만 출신천의 경우는 비교

---

9 신한조는 1722년 정시 무과에서 전체 301명 중 103등으로 합격했다.

10 선천인 아버지의 관직 및 직역에 대해서는 부친 6건과 천거 종류를 알 수 없는 93건을 제외한 총 2,208건을 출신천(1,346)과 남향천(862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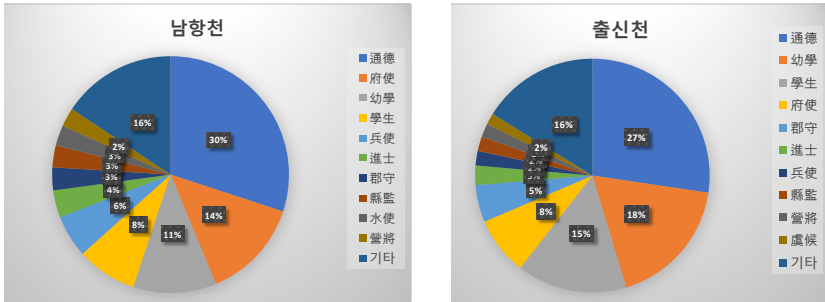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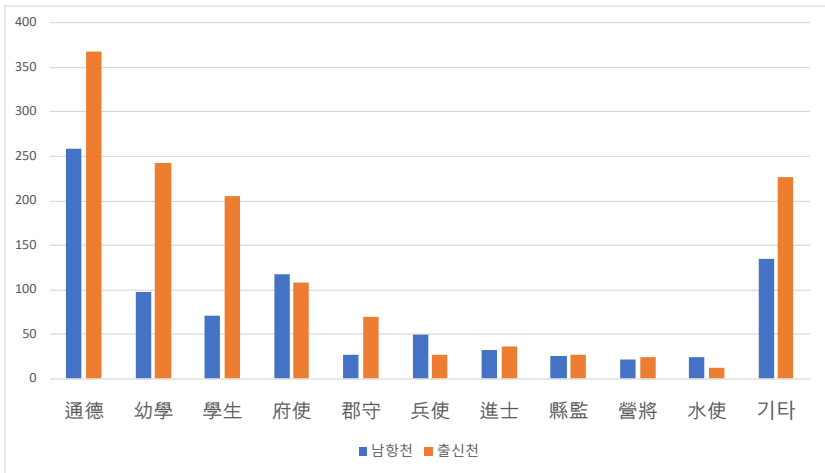


그림2-영조 대 남향천과 출신천 간 비교: 선천인 아버지의 관직 및 지역

적 문관 출신 가문에서 전향하는 가능성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또한 남향천의 경우 출신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데, 성관에서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준다.

영조 대 선천인의 성관(495건)은 127개 성관에 속해 있다." 이들은 대체로 다음의 10개 성관 전주 이씨(60건, 12.1%), 평산 신씨(16건, 3.2%), 안동

11 무과방목을 통해 영조 대 성관을 알 수 있는 선천인 전체 495건 중 남향천은 115건, 출신천은 380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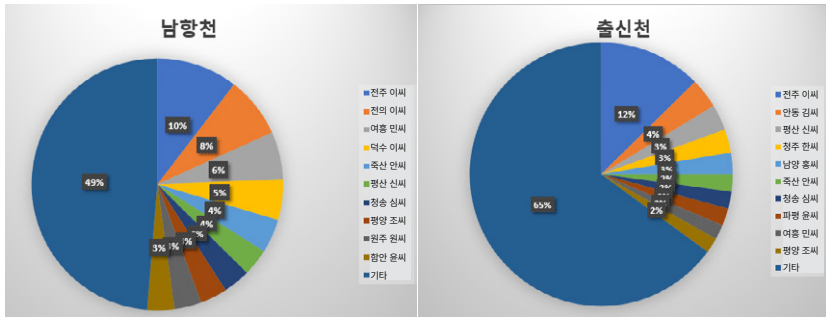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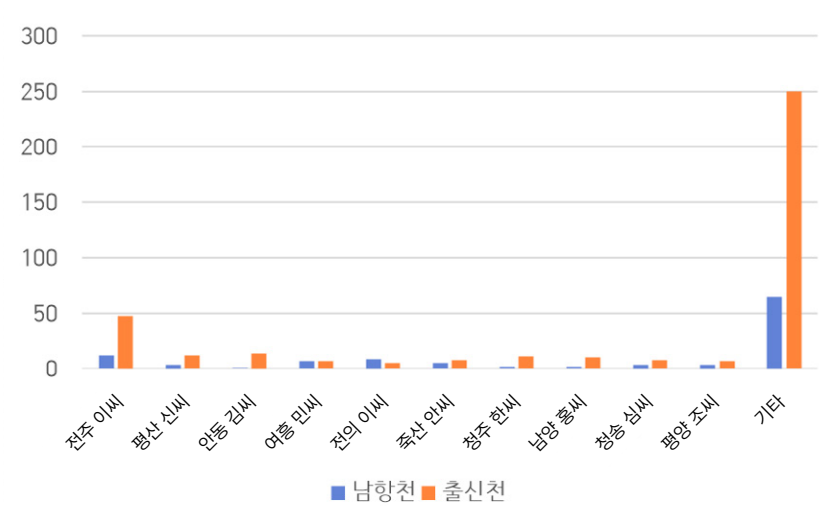


그림3-영조 대 남향천과 출신천 간 비교: 선천인의 성관

김씨(15건, 3%), 여흥 민씨(14건, 2.8%), 전의 이씨(14건, 2.8%), 죽산 안씨(13건, 2.6%), 청주 한씨(13건, 2.6%), 남양 홍씨(12건, 2.4%), 청송 심씨(12건, 2.4%), 평양 조씨(11건, 2.2%)에 집중되었다.<sup>12</sup> 선천인 상위 5개 성관(119건)은 선천인 전체의 24%에 해당했다.

남향천(115건)은 전주 이씨(12건, 10.4%), 전의 이씨(9건, 7.8%), 여흥 민

<sup>12</sup> 10명 이상의 성관을 대표 성관으로 표시했다.



씨(7건, 6.1%), 덕수 이씨(6건, 5.2%), 죽산안씨(5건, 4.3%), 평산 신씨(4건, 3.5%), 청송 심씨(4건, 3.5%), 평양 조씨(4건, 3.5%), 원주 원씨(4건, 3.5%), 함안 윤씨(4건, 3.5%) 등의 성관에 집중되었다. 남향천 상위 5개 성관(39건)은 남향천 전체의 33.9%에 해당했다.

출신천(380건)은 전주 이씨(48건, 12.6%), 안동 김씨(14건, 3.7%), 평산 신씨(12건, 3.2%), 청주 한씨(11건, 2.9%), 남양 홍씨(10건, 2.6%), 죽산 안씨(8건, 2.1%), 청송 심씨(8건, 2.1%), 파평 윤씨(8건, 2.1%), 여흥 민씨(7건, 1.8%), 평양 조씨(7건, 1.8%), 풍양 조씨(7건, 1.8%), 전주 최씨(7건, 1.8%), 한양 조씨(7건, 1.8%) 등의 성관에 집중되었다. 출신천 상위 5개 성관(95건)은 출신천 전체의 25%에 해당했다. 즉, 상위 5개 성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출신천에 비해 남향천이 지별이 좋은 특정 가문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선천인의 거주지(2,160건)는 서울(1,366건, 63.2%), 청주(35건, 1.6%), 수원(34건, 1.6%), 충주(33건, 1.5%), 공주(31건, 1.4%), 양주(29건, 1.3%), 광주(24건, 1.1%), 죽산(18건, 0.8%), 아산(17건, 0.7%), 단성(16건, 0.7%), 대흥(16건, 0.7%) 등 순이다.<sup>13</sup>

남향천의 거주지(851건)는 서울(672건, 79%), 공주(18건, 2.1%), 아산(10건, 1.2%), 충주(9건, 1.1%), 청주(7건, 0.8%), 광주(7건, 0.8%), 양주(6건, 0.7%), 해미(6건, 0.7%), 서산(6건, 0.7%), 죽산(5건, 0.6%), 대흥(5건, 0.6%), 부여(5건, 0.6%), 적성(5건, 0.6%) 등 순이다. 출신천의 거주지(1309건)는 서울(694건, 53%), 수원(30건, 2.3%), 청주(28건, 2.1%), 충주(24건, 1.8%), 양주(23건, 1.8%), 광주(17건, 1.3%), 적성(15건, 1.1%), 공주(13건, 1%), 죽산(13건, 1%), 충원(13건, 1%) 등 순이다.

---

13 『선전관청천안』에 거주지 정보가 기재된 2,160건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남향천은 851건, 출신천은 1,309건이다.

선천인은 서울에서 거주한 비율이 63.2%로 가장 높았는데, 남향천의 서울 거주가 79%로 출신천의 서울 거주 53%보다 높았다. 선천인은 서울>충청>경기 순으로 거주했으며, 남향천은 출신천에 비해 서울 거주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선천인의 서울 집중도는 무과 급제 때보다 선전관 천거 때가 높았으며, 무과 급제 때 남향천보다 선전관 천거 때 남향천이 높았다.<sup>14</sup>

즉, 영조 대 선천인은 통덕랑·유학·학생 등의 아버지를 둔 전주 이씨·평산 신씨·안동 김씨·여흥 민씨·전의 이씨 등으로 주로 서울에 거주한 인물이 평균 30.2세 때 무과에 급제하고 30.3세 때 선천이 되었다. 남향천은 통덕랑·유학·부사 등의 아버지를 둔 전주 이씨·전의 이씨·여흥 민씨·덕수 이씨·죽산 안씨 등으로 주로 서울에 거주한 인물이 평균 24.3세 때 남향천이 되었고, 30.2세에 무과에 급제했다. 출신천은 통덕랑·유학·학생 등의 아버지를 둔 전주 이씨·안동 김씨·평산 신씨·청주 한씨·남양 홍씨 등으로 주로 서울에 거주한 인물이 30.2세에 무과에 급제했고, 32.2세 때 출신천이 되었다.

한편, 영조 대 선천인의 무과 급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조 대 선천인의 무과 급제 때 전력(474건)<sup>15</sup>은 한량(214건, 45.1%), 통덕랑(199건, 42%), (전)선전관(17건, 3.6%), (겸)내승(7건, 1.5%), 부사과(5건, 1.1%), 부장(4건, 0.8%), 상호군(4건, 0.8%), 충의위(4건, 0.8%) 등의 순이었다. 남향천의 전력(99건)은 통덕랑(37건, 37.4%), 한량(20건, 20.2%), (전)선

14 무과 급제 때 선천인의 거주지(472건)는 서울(218건, 46.2%), 수원(12건, 2.5%), 청주(12건, 2.5%), 공주(10건, 2.1%), 광주(10건, 2.1%) 등 순이다. 무과 급제 때 남향천(99건)의 거주지는 서울(70건, 70.7%), 공주(5건, 5.1%), 목천(2건, 2.0%), 여주(2건, 2.0%), 온양(2건, 2.0%) 등 순이며, 출신천(373건)은 서울(148건, 39.7%), 수원(12건, 3.2%), 청주(11건, 2.9%), 광주(9건, 2.4%), 충주(8건, 2.1%) 등 순이다. 무과 급제 때 선천인은 서울>충청>경기 순으로 거주했으며, 남향천은 출신천에 비해 무과 급제 때 서울 거주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무과방목을 통해 영조 대 전력을 알 수 있는 선천인 전체 474건 중 남향천은 99건, 출신천은 375건이다.

전관(17건, 17.2%), (겸)내승(5건, 5.1%), 부사과(5건, 5.1%), 상호군(4건, 4%) 등 순이었다. 출신천의 전력(375건)은 한량(194건, 51.7%), 통덕랑(162건, 43.2%), 충의위(4건, 1.1%), (겸)내승(2건, 0.5%), 부장(겸)내승(2건, 0.5%), 권무군관(겸)내승(2건, 0.5%), 별무사(겸)내승(2건, 0.5%) 등 순이었다.

영조 대 선천인의 무과 급제 때 전력은 한량과 통덕랑(87.1%)에 집중되었다. 전력이 한량과 통덕랑에 집중되는 경향은 출신천이 더 강했는데, 남향천의 전력 중 한량과 통덕랑은 57.6%이나 출신천의 전력 중 한량과 통덕랑은 94.9%였다. 한량과 통덕랑을 제외하면 남향천의 경우는 (전)선전관, (겸)내승, 부사과 등이, 출신천은 충의위, (겸)내승, 부장 등이 주요 전력이었다.

선천인의 급제 무과(470건)는 각종 별시(251건, 53.4%), 증광시(110건, 23.4%), 식년시(109건, 23.1%) 순이다. 남향천(110건)은 각종별시(46건, 41.8%), 식년시(42건, 38.1%), 증광시(22건, 20%) 순이며, 출신천(360건)은 각종별시(205건, 56.9%), 증광시(88건, 24.4%), 식년시(67건, 18.6%) 순으로 급제했다. 남향천과 출신천 모두 별시 급제가 가장 많았지만, 남향천이 출신천에 비해 별시 급제 비율이 약 15% 정도 낮았던 반면 식년시 급제는 남향천이 출신천에 비해 약 20% 정도 높았다.

무과 합격 등수를 알 수 있는 선천인(466건)의 합격 등수를 전체 합격자 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 본 결과 백분위 48.4에 해당했다. 이는 100명의 합격자 중 48.4등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남향천(109건)은 백분위 47.2에 해당했고, 출신천(357건)은 백분위 48.7에 해당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향천이 출신천에 비해 약 1.5등 정도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조 대 선천인은 평균 30.2세에 무과에 급제했으며, 주된 전력은 한량과 통덕랑(전체 87.1%)이었다. 남향천은 이 비율이 57.6%로 낮았고 (전)선전관·(겸)내승 등 다양한 전력을 가졌던 반면, 출신천은 94.9%로 한량과 통덕랑에 집중되었다. 시험 유형은 전체적으

로 각종별시가 가장 많았으나, 남향천은 식년시의 비중이 높았다. 급제 등수는 전체 평균 48.4등으로 남향천(47.2등)이 출신천(48.7등)보다 약간 높았다.

### Ⅲ. 영조 대 선천인의 관로 분석

이번 장에서는 영조 대 선천인이 어떤 관직 경로를 밟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천의 종류(남향천·출신천), 무과 급제 여부, 선전관 및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역임 여부 등이 관로 형성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sup>16</sup> 먼저 영조 대 선천인 전체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영조 대 선천인(2,099건) 가운데 66.5%가 무과에 급제했으며, 52.4%가 선전관을 거쳤고, 48.1%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sup>17</sup> 외관직으로는 36.4%가 현감·현령·군수를, 27.2%가 부사·목사를 지냈다. 36.9%가 만호·우후·첨사를, 38.4%가 영장·위장을 역임했다. 반면 고위 무관직은 크게 비율이 낮아져 수사·병사는 9.5%, 통제사·통어사는 1.7%, 대장은 1.8%에 불과했다. 한편, 출신천과 남향천 간에는 관직 진출 양상에서 뚜렷한

---

16 선천의 종류는 『선전관청천안』을, 무과 급제 여부는 무과방목을, 선전관 역임 및 관로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했다. 영조 대 시행된 126회의 무과 중에 23종(18.2%)의 방목이 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646명의 무과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103회(81.7%)의 방목은 전하지 않아 합격자를 알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무과방목에서 확인할 수 없더라도 『선전관청천안』에서 출신천, 급제 연도 및 급제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면 무과 급제자로 간주하고 분석했다.

17 분석 대상은 『선전관청천안』 2책에 수록된 2,307건 가운데 부천(6건), 천거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93건)를 제외한 2,208건이다. 이 가운데 성명이 불명확하거나(16건), 인명 중복(93건)으로 관직 기록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99건(남향천 837건, 출신천 1,262건)을 분석했다. 이들 가운데 66.2%인 1,390건이 관직에 진출했으며, 33.8%인 709건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표2-영조 대 선천인의 관로 분석

(단위: 건, %)

구분	무과	선전관	훈련원 <sup>1</sup> 도총부 <sup>2</sup> 중추부 <sup>3</sup>	현감 현령 군수	부사 목사	만호 우후 첨사	영장 위장	수사 병사	통제사 통어사	대장	합계
남향천	133 (15.9)	401 (47.9)	376 (44.9)	295 (35.2)	286 (34.2)	255 (30.5)	344 (41.1)	138 (16.5)	30 (3.6)	33 (3.9)	837
출신천	1,262 (100)	699 (55.4)	633 (50.2)	468 (37.1)	285 (22.6)	520 (41.2)	463 (36.7)	61 (4.8)	6 (0.5)	4 (0.3)	1,262
전체	1,395 (66.5)	1,100 (52.4)	1,009 (48.1)	763 (36.4)	571 (27.2)	775 (36.9)	807 (38.4)	199 (9.5)	36 (1.7)	37 (1.8)	2,099

주: (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 1. 훈련원: 주부, 판관, 첨정, 부정, 정
- 2. 도총부: 도사, 경력
- 3. 중추부: 경력

차이를 보였고, 고위 무관직일수록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영조 대 남향천(837건)은 15.9%만 무과에 급제했으나, 47.9%가 선전관을 거쳤고, 44.9%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35.2%가 현감·현령·군수를, 34.2%가 부사·목사를 지냈으며, 30.5%가 만호·우후·첨사를, 41.1%가 영장·위장을 역임했다. 고위 무관직 비율은 수사·병사 16.5%, 통제사·통어사 3.6%, 대장 3.9%로 출신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영조 대 출신천(1,262건)은 모두 무과에 급제했고, 55.4%가 선전관을 거쳤으며, 50.2%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37.1%가 현감·현령·군수를, 22.6%가 부사·목사를 지냈다. 41.2%가 만호·우후·첨사를, 36.7%가 영장·위장을 역임했으나, 고위 무관직에서는 수사·병사 4.8%, 통제사·통어사 0.5%, 대장 0.3%로 남향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원이 무과 급제한 출신천은 비교적 관품이 낮은 선전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 현감·현령·군수, 만호·우후·첨사에 남향천보다 높은 비율로 진출했으나, 15.9%만 무과에 급제한 남향천은 비교적 관품이 높은 부

사·목사,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 통제사·통어사, 대장에 출신천보다 높은 비율로 진출했다. 출신천은 관품이 낮은 관직에, 남향천은 고위 무관직에 높은 비율로 진출했던 것이다. 관품이 낮은 관직은 무과 급제 여부가, 관품이 높은 무관직은 지벌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영조 대 전반과 후반에 선천인의 관로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영조 재위 전반 선천인(911건) 가운데 66.9%가 무과에 급제했으며, 50.4%가 선전관을 거쳤고, 46.7%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외관직으로는 36.2%가 현감·현령·군수를, 27.6%가 부사·목사를 지냈다. 38.2%가 만호·우후·첨사를, 38.7%가 영장·위장을 역임했다.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는 9.7%, 통제사·통어사는 2.2%, 대장은 2.3%였다.

영조 재위 전반 남향천(359건)은 16.1%만 무과에 급제했으나, 43.2%가 선전관을 거쳤고, 42.1%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34.8%가 현감·현령·군수를, 34.8%가 부사·목사를 지냈으며, 27%가 만호·우후·첨사를, 39.3%가 영장·위장을 역임했다.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는 16.7%, 통제사·통어사 5%, 대장 5.3%였다.

표3-영조 재위 전반(1724~1750) 선천인의 관로 분석 (단위: 건, %)

구분	무과	선전관	훈련원 도총부 중추부	현감 현령 군수	부사 목사	만호 우후 첨사	영장 위장	수사 병사	통제사 통어사	대장	합계
남향천	58 (16.1)	155 (43.2)	151 (42.1)	125 (34.8)	125 (34.8)	97 (27)	141 (39.3)	60 (16.7)	18 (5)	19 (5.3)	359
출신천	552 (100)	304 (55.1)	274 (49.6)	205 (37.1)	126 (22.8)	251 (45.5)	212 (38.4)	28 (5.1)	2 (0.4)	2 (0.4)	552
전체	609 (66.9)	459 (50.4)	425 (46.7)	330 (36.2)	251 (27.6)	348 (38.2)	353 (38.7)	88 (9.7)	20 (2.2)	21 (2.3)	911

주: (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영조 재위 전반 출신천(552건)은 모두 무과에 급제했고, 55.1%가 선전관을 거쳤으며, 49.6%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37.1%가 현감·현령·군수를, 22.8%가 부사·목사를 지냈다. 45.5%가 만호·우후·첨사를, 38.4%가 영장·위장을 역임했다.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는 5.1%, 통제사·통어사 0.4%, 대장 0.4%였다.

영조 재위 후반 선천인(1,188건) 가운데 66.2%가 무과에 급제했으며, 54%가 선전관을 거쳤고, 49.2%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외관직으로는 36.4%가 현감·현령·군수를, 26.9%가 부사·목사를 지냈다. 35.9%가 만호·우후·첨사를, 38.2%가 영장·위장을 역임했다.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는 9.3%, 통제사·통어사는 1.3%, 대장은 1.3%였다.

영조 재위 후반 남향천(478건)은 15.7%만 무과에 급제했으나, 51.5%가 선전관을 거쳤고, 47.1%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35.6%가 현감·현령·군수를, 33.7%가 부사·목사를 지냈으며, 33.1%가 만호·우후·첨사를, 42.5%가 영장·위장을 역임했다.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는 16.3%, 통제사·통어사 2.5%, 대장 2.9%였다.

표4-영조 재위 후반(1751~1776) 선천인의 관료 분석 (단위: 건, %)

구분	무과	선전관	훈련원 도총부 중추부	현감 현령 군수	부사 목사	만호 우후 첨사	영장 위장	수사 병사	통제사 통어사	대장	합계
남향천	75 (15.7)	246 (51.5)	225 (47.1)	170 (35.6)	161 (33.7)	158 (33.1)	203 (42.5)	78 (16.3)	12 (2.5)	14 (2.9)	478
출신천	710 (100)	395 (55.6)	359 (50.6)	263 (37)	159 (22.4)	269 (37.9)	251 (35.4)	33 (4.6)	4 (0.6)	2 (0.3)	710
전체	786 (66.2)	641 (54)	584 (49.2)	433 (36.4)	320 (26.9)	427 (35.9)	454 (38.2)	111 (9.3)	16 (1.3)	16 (1.3)	1,188

주: (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영조 재위 후반 출신천(710건)은 모두 무과에 급제했고, 55.6%가 선전관을 거쳤으며, 50.6%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37%가 현감·현령·군수를, 22.4%가 부사·목사를 지냈다. 37.9%가 만호·우후·첨사를, 35.4%가 영장·위장을 역임했다.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는 4.6%, 통제사·통어사 0.6%, 대장 0.3%였다.

영조 재위 전반과 후반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확인된다. 전체 선전관의 무과 급제 비율은 전반기 66.9%, 후반기 66.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선전관 역임 비율은 후반기에 54%로 전반기(50.4%)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역임 비율 역시 전반기 46.7%에서 후반기 49.2%로 다소 늘었다. 이는 후반기에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진출이 전반보다 조금 더 활발해졌음을 보여 준다.

외관직에서는 현감·현령·군수 역임 비율이 전반기(36.2%)와 후반기(36.4%)가 거의 같았으나, 부사·목사 역임 비율은 전반기 27.6%에서 후반기 26.9%로 소폭 감소했다. 만호·우후·첨사 역임 비율은 후반기(35.9%)가 전반기(38.2%)보다 다소 낮아졌고, 영장·위장 비율은 전반기(38.7%)와 후반기(38.2%)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고위 무관직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후반기에 수사·병사 역임 비율이 전반기(9.7%)보다 약간 낮은 9.3%로 감소했고, 통제사·통어사와 대장 역임 비율도 전반기 각각 2.2%, 2.3%에서 후반기 1.3%로 하락했다.

남향천의 경우, 무과 급제 비율은 전반기(16.1%)와 후반기(15.7%)가 비슷했으나, 관직 진출 양상은 후반기에 더 두드러졌다. 전반기 남향천의 선전관 역임 비율이 43.2%였던 데 비해 후반기에는 51.5%로 상승했으며,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역임 비율도 전반기 42.1%에서 후반기 47.1%로 높아졌다. 부사·목사 역임 비율은 전반기 34.8%에서 후반기 33.7%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출신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위 무관직 중 수사·병사,



통제사·통어사, 대장 역임 비율은 후반기에도 각각 16.3%, 2.5%, 2.9%로 전반기와 유사하거나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출신전보다 월등히 높았다.

출신전의 선전관 역임 비율은 후반기 55.6%로 전반기(55.1%)와 거의 같았고,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역임 비율은 전반기 49.6%에서 후반기 50.6%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고위 무관직으로의 진출은 후반기에도 여전히 매우 낮아, 수사·병사는 4.6%, 통제사·통어사와 대장은 각각 0.6%, 0.3%에 그쳤다. 이는 전반기 수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

종합해 보면 영조 재위 후반에는 전체적으로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진출 비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특히 남향천의 관직 진출이 전반기에 비해 더욱 활발해졌다. 고위 무관직 진출 비율은 출신전이 여전히 매우 낮았고, 남향천은 일정 비율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이는 영조 대 선천인의 관료에서 무과 급제 여부와 지별, 그리고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경력 여부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였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렇다면 무과 급제 출신 남향천으로 선전관이나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거친 경우 관로는 어땠을까?

영조 대 무과 출신 남향천(133건) 중 75.2%가 선전관에 제수되었고, 76.7%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외관직에서는 64.7%가 현감·현령·군수를, 54.1%가 부사·목사를 지냈다. 55.6%가 만호·우후·첨사를, 66.9%가 영장·위장을 역임했다.

고위 무관직으로의 진출 비율은, 수사·병사는 31.6%, 통제사·통어사는 12.8%, 대장은 13.5%에 달해 영조 대 선천인의 통제사·통어사, 대장 역임 비율에 비해 10%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수사·병사 이하의 관직에서는 전체 영조 대 선천인보다 대체로 20~30% 이상 높은 역임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무과 출신 남향천의 관직 제수 비율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무과 출신 남향천이 선전관이나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거

표5-영조 대 무과 출신 남향천의 관직 경로

(단위: 건, %)

남향천	무과	선전관	훈련원 도총부 중추부	현감 현령 군수	부사 목사	만호 우후 첨사	영장 위장	수사 병사	통제사 통어사	대장
무과 출신 남향천: 133		100 (75.2)	102 (76.7)	86 (64.7)	72 (54.1)	74 (55.6)	89 (66.9)	42 (31.6)	17 (12.8)	18 (13.5)
무과 출신 남향천 선전관:100			99 (99)	68 (68)	66 (66)	55 (55)	74 (74)	41 (41)	17 (17)	18 (18)
무과 출신 남향천 훈련원·도총부· 중추부: 102		92 (90.2)	102 (100)	73 (71.6)	65 (63.7)	62 (60.8)	74 (72.5)	41 (40.2)	16 (15.7)	18 (17.6)
무과 출신 남향천 선전관 + 훈련원·도총부·중추부: 99				64 (64.6)	62 (62.6)	52 (52.5)	70 (70.7)	40 (40.4)	16 (16.2)	18 (18.2)

주: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친 경우, 다른 관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무과 출신 남향천 선전관(100건) 중 99%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68%가 현감·현령·군수를, 66%가 부사·목사를, 55%가 만호·우후·첨사를, 74%가 영장·위장을, 41%가 수사·병사를, 17%가 통제사·통어사를, 18%가 대장을 역임했다. 또한 무과 출신 남향천으로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한 경우(102건)의 90.2%가 선전관을, 71.6%가 현감·현령·군수를, 60.8%가 만호·우후·첨사를, 72.5%가 영장·위장을, 40.2%가 수사·병사를, 15.7%가 통제사·통어사를, 17.6%가 대장을 지냈다.

즉, 무과 출신 남향천이 선전관이나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을 때, 단순히 무과 출신 남향천보다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다른 관직 진출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영조 대 선천인의 관직 진출 비율과 비교하면 15~40%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 통제사·통어사, 대장 역임자의 무과 급제 여부,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경력

표6-고위 무관직의 무과 급제, 선전관 및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역임 수치(단위: 건, %)

수사 병사	무과	선전관	훈련원 도총부 중추부	통제사 통어사	무과	선전관	훈련원 도총부 중추부	대장	무과	선전관	훈련원 도총부 중추부
남향천 138	39 (28.3)	134 (97.1)	128 (92.8)	남향천 (30)	15 (50)	30 (100)	29 (96.7)	남향천 (33)	18 (59.5)	33 (100)	33 (100)
출신천 61	61 (100)	56 (91.8)	55 (90.2)	출신천 (6)	6 (100)	6 (100)	6 (100)	출신천 (4)	4 (100)	4 (100)	4 (100)
전체 199	100 (50.3)	190 (95.5)	183 (92)	전체 (36)	21 (58.3)	36 (100)	35 (97.2)	전체 (37)	22 (59.5)	37 (100)	37 (100)

주: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을 연결해 보면, 무과 출신 남향천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관직 경로에서 확연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 대 선천인 중 수사·병사(199건) 가운데 무과에 급제한 비율은 50.3%, 통제사·통어사(36건)는 58.3%, 대장(37건)은 59.5%로 나타나, 영조 대 전체 선천인의 무과 급제율(66.5%)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들 고위 무관직 집단은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을 대부분 경험했다. 수사·병사의 95.5%가 선전관을, 92%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을 역임했다. 통제사·통어사와 대장은 모두(100%) 선전관을 거쳤고, 각각 97.2%, 100%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이는 영조 대 전체 선천인 선전관 역임 비율(52.4%),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 역임 비율(48.1%)과 비교할 때 약 두 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다.

즉, 영조 대 선천인이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 통제사·통어사, 대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과 급제가 아니라,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

추부 관직 경력이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sup>18</sup>

#### IV. 맺음말

지금까지 『선전관청천안』, 무과방목, 『승정원일기』를 분석하여 영조 대 선천인의 사회적 배경과 관직 경로를 살펴보았다. 『선전관청천안』 2책에는 1725년부터 1775년까지 2,307건의 선천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무과방목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생년, 본관, 급제 등수, 거주지, 관로 등을 추적하고 분석했다.

- 18 선천인의 무반 관료에서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의 중요성은 법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전관은 당상·당하, 참상·참하를 막론하고 승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임기를 마친 선전관은 도목정사 때 곧바로 6품으로 승진했으며, 참하 승진 선전관은 15개월을 채우면 도목정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륙할 수 있었다. 참상 승진 선전관은 곧바로 한 품계를 올려 주었고, 만약 지방 3품 수령이나 병마우후를 거쳤으면 곧바로 당상관직에 임명되었다. 특히 당상 승진 선전관이 이전에 변지 (침)절제사 및 방어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기 종료 후 변지 (침)절제사 및 방어사로 임명하고, 이미 이를 거친 경우에는 즉시 수사로 추천되었다. 훈련원 또한 선천인 관로의 핵심이었다. 훈련원 주부 한 자리는 각 군문의 선천인 초관이 승륙할 때 추천받아 임명되었고, 첨정은 선천인이 아니면 의망할 수 없었으며, 정은 선전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별천으로도 의망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오위도총부 도사와 경력 역시 선천인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兩銓便攷』 권2, 「西銓 陞六」, “每都政 仕滿宣傳官·公事官·從事官·挾輦槍劍哨官·內乘·武兼·部將·守門將·廟殿守門將·參軍·權管, 從仕次陞六. 參下宣傳官·從事官·內乘·武兼·部將·守門將·參軍·權官陞敘 則陞六. 參下承傳宣傳官 準十五朔 不待都政 懸註陞六”;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宣傳官廳」, “**○**無論堂上·堂下 四窠 作爲承傳歧 六朔後遷轉. 堂上 則若未經邊地·防禦使者 準朔後 卽除邊地·防禦使 已經防禦使者 卽擬水使. 參上 則以六品來者 五品施行直擬四品 每品皆加一階. 若已經外三品守令或兵虞候 則卽除堂上職. 參下 則準十五朔出六. ○行首宣傳官 間以文臣差出 以史議·副學 已通人擬差 將薦 經闕任者 亦擬”; 『大典會通』, 「兵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訓練院」, “**○**主簿一窠 各軍門哨官宜薦陞六品者 擬差. … **○**僉正 則非宜薦人 毋得擬差. … **○**正 經守令或兵虞候通擬 未經宣傳官雖別薦勿擬”; 『大典會通』, 「兵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五衛都總府」, “**○**…堂下官以宜薦擇差”.

영조 대 선천인은 약 30세에 무과에 급제했지만, 남향천은 약 24세 때 선전관에 천거된 반면 출신천은 약 32세에 선전관에 천거되었다. 선천인 아버지의 관직 및 직역은 통덕랑, 유학, 학생, 부사, 군수, 병사, 진사 순이었는데, 통덕랑을 제외하면 남향천 아버지는 부사와 병사의 비중이 큰 반면 출신천 아버지는 유학과 학생의 비중이 컸다. 출신천의 경우 비교적 문관 출신 가문에서 전향하는 가능성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선천인 본인의 무과 급제 때 전력은 한량과 통덕랑에 집중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남향천은 선전관·내승, 출신천은 충의위·부장이 주요 전력이었다.

선천인의 성관은 127개였는데, 그중 선천 상위 5개 성관은 전주 이씨·평산 신씨·안동 김씨·여흥 민씨·전의 이씨 순이며, 이는 전체 선천의 24%에 해당했다. 남향천은 지별이 강한 전주 이씨·전의 이씨 등 특정 가문에 집중되었다. 거주지는 서울 비중이 높았고, 남향천은 특히 서울 거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험 종류로 보면 남향천과 출신천 모두 각종 별시 급제가 가장 많았으나, 남향천은 출신천보다 각종 별시 급제 비율이 15% 정도 낮았고, 식년시 급제 비율은 20% 정도 높았다. 무과 합격자 백분위는 전체 48.4였으며, 남향천 47.2, 출신천 48.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로 분석 결과, 영조 대 선천인(2,099건) 가운데 66.5%가 무과에 급제했고, 52.4%가 선전관을 거쳤으며, 48.1%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을 역임했다. 그러나 고위 무관직 진출 비율은 낮아 수사·병사는 9.5%, 통제사·통어사는 1.7%, 대장은 1.8%에 불과했다.

출신천과 남향천의 차이는 뚜렷했다. 전원이 무과 급제한 출신천은 비교적 관품이 낮은 관직(선전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 현감·현령·군수, 만호·우후·첨사)에 높은 비율로 진출했으나, 15.9%만 무과에 급제한 남향천은 비교적 관품이 높은 부사·목사와 고위 무관직(수사·병사, 통제사·통어사,

대장)에 출신천보다 높은 비율로 진출했다.

영조 재위 기간 전반과 후반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진출 비율이 후반기에 소폭 상승했고, 특히 남향천의 관직 진출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고위 무관직 진출 비율은 출신천이 여전히 낮았고, 남향천은 일정 비율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무과 출신 남향천(133건)은 75.2%가 선전관에, 76.7%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에 진출해 전체 선천인보다 높은 관직 진출율을 보였다. 특히 선전관이나 훈련원·도총부·중추부를 거친 경우, 다른 관직 진출 비율이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상승했고, 이는 전체 선천인 평균보다 15~40% 이상 높은 수치였다.

한편 고위 무관직인 수사·병사, 통제사·통어사, 대장 역임자들의 무과 급제 비율은 전체 선천인 평균보다 낮았지만,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역임 비율은 두 배가 넘었다. 영조 대 선천인이 고위 무관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과 급제보다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 경력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개별 인물 사례 분석이 부족했다. 향후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무반 인사의 구조와 변동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大典通編』.  
『大典會通』.  
『宣傳官廳薦案』.  
『續大典』.  
『承政院日記』.  
『兩銓便攷』.  
『英祖實錄』.

### 2. 논저

박홍갑, 「朝鮮前期의 宣傳官」, 『사학연구』 41, 1990, 119~145쪽.  
안병일, 「조선시대 선전관청의 운영과 기능, 그리고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8-1, 2014, 25~47쪽.  
윤혜민, 「숙종대 『선전신천안』을 통해 본 무관의 인사 운영과 관직 이동」, 『사림』 91, 2025, 175~202쪽.  
장필기, 「朝鮮後期 宣傳官出身 家門의 武班閥族化 過程」, 『군사』 42, 2001, 253~280쪽.  
정혜은, 「조선후기 선전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2001, 127~160쪽.  
정혜은, 「조선 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 2008, 293~323쪽.  
정혜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의 진로에 나타난 차별의 문제: 1784년(정조 8) 책봉경과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8, 2012, 39~64쪽.  
정혜은,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 서울: 역사산책, 2020.  
정혜은, 『붓과 칼 사이의 질서: 조선의 무관 제도사』, 서울: 역사산책, 2025.

## 국문초록

이 글은 『선전관청천안』을 기초 데이터로 하여 무과방목, 『승정원일기』 등과 교차 검증을 통해 영조 대 선천인의 사회적 배경과 관로를 분석한 연구이다. 영조 대는 선천 관련 규정이 법제화되고 많은 자료가 남아 있어 선천 연구의 기준점이 되는 시기이다. 영조 대 선천인은 평균 약 30세에 무과에 급제했으며, 남향천은 약 24세, 출신천은 약 32세에 선전관에 천거되었다. 선천인의 아버지 관직·직역은 통덕랑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제외하면 남향천은 부사·병사의 비중이 높고, 출신천은 유학·학생이 많았다. 본인의 무과 급제 때 주요 전력은 한랑·통덕랑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제외하면 남향천은 선전관·내승, 출신천은 충의위·부장이었다. 선천인의 성관은 전주 이씨·평산 신씨·안동 김씨·여흥 민씨·전의 이씨 순이었는데, 남향천은 특히 전주 이씨·전의 이씨 등 특정 가문에 집중되었다. 거주지는 전체적으로 서울이 많았고, 남향천이 출신천보다 서울 거주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시험 종류는 각종 별시 급제가 많았으나, 남향천은 각종 별시 비율이 출신천보다 15% 낮고 식년시는 20% 높았다. 무과 합격자 백분위는 전체 48.4였고, 남향천 47.2, 출신천 48.7로 큰 차이는 없었다.

영조 대 선천인(2,099건) 중 66.5%가 무과에 급제했고, 52.4%가 선전관, 48.1%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을 역임했으나, 고위 무관직 진출은 수사·병사 9.5%, 통제사·통어사 1.7%, 대장 1.8%에 그쳤다. 출신천은 관품이 낮은 관직에서, 남향천은 고위 무관직에서 높은 비율로 진출해 양자 간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무과 출신 남향천(133건)은 75.2%가 선전관, 76.7%가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관직에 진출해 전체 선천인보다 높은 관직 진출률을 보였다. 선전관이나 훈련원·도총부·중추부를 거친 경우 관직 진출 비율은 3~12% 더 높았으며, 전체 선천인 평균 대비 15~4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위 무관직 역임자는 무과 급제 비율이 선천인 전체 평균보다 낮았지만,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 역임 비율은 두 배가 넘었다. 영조 대 선천인이 고위 무관직으로 진출



하기 위해서는 무과 급제보다 선전관과 훈련원·도총부·중추부 경력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영조 대 선천인의 사회적 배경과 관로를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무반 관료에서 선천과 선전관, 훈련원·도총부·중추부의 관직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투고일 2025. 7. 4.

심사일 2025. 8. 1.

게재 확정일 2025. 8. 26.

주제어(keywords) 선천(seonjeongwan nomination), 선전관(seonjeongwan), 선전관청천안(Register of Seonjeongwan Nominations), 무반 관로(military bureaucratic career path), 관료 데이터 분석(bureaucratic data analysis)

## Abstract

### Seonjeongwan Nomination and Military Bureaucratic Career Path in the Yeongjo Era in Korea: *The Register of Seonjeongwan Nominations* and Bureaucratic Data Analysis

Yi, Namok

This study examined the social backgrounds and career paths of Seonjeongwan nominee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in Korea based on the *Seonjeongwancheongcheonan* (Register of Seonjeongwan Nominations), cross-referenced with other historical sources, such as military examination rosters (Mugwa Bangmok) and the *Seungjeongwon Ilgi*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The Yeongjo era serves as a crucial benchmark for research on Seonjeongwan nominations du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and the abundance of surviving records.

On average, Seonjeongwan nominees during the Yeongjo period passed the military examination at approximately 30 years of age. However, nominees from Namhangcheon were nominated as Seonjeongwan around the age of 24 years while those from Chulssincheon were nominated around the age of 32 years. The fathers of the Seonjeongwan nominees were most commonly officials holding the title of Tongdeokrang, but excluding this, Namhangcheon fathers were more often Busa or Byeongsa whereas Chulssincheon fathers were more likely to be Yuhak or Haksaeng. The nominees were most frequently recorded as Hallyang or Tongdeokrang; excluding these, Namhangcheon nominees often served as Seonjeongwan or Naeseung while the Chulssincheon nominees were frequently Chunguiwi guards or military Bujang.

Among the 127 clan names recorded for the Seonjeongwan nominees, the Jeonju Yi, Pyeongsan Sin, Andong Kim, Yeoheung Min, and Jeonui Yi clans were the most common, with the Namhangcheon nominees particularly concentrated in powerful regional families, such as the Jeonju Yi and Jeonui Yi clans. Geographically, most nominees resided in Seoul, with the Namhangcheon nominees showing a significantly higher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than the Chulssincheon nominees.

Regarding the types of military examinations, while both the Namhangcheon and Chulssincheon nominees predominantly passed various special examinations (Byeolsi), the proportion of such cases among the Namhangcheon nominees was approximately 15% lower than that among the Chulssincheon nominees whereas the Namhangcheon had a 20% higher success in the regular triennial examinations (Siknyeonsi). The average percentile rank among the military examination passers was 48.4, with the Namhangcheon at 47.2 and the Chulssincheon at 48.7,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2,099 Seonjeongwan nominees analyzed during the Yeongjo period, 66.5% passed the military examination, 52.4% held Seonjeongwan positions, and 48.1% served in posts within Hunryeonwon; Dochongbu; and Jungchubu. However, advancement to high-ranking military posts was rare; only 9.5% became Susa or Byeongsa, 1.7% became Tongjesa or Tongoeosa, and 1.8% became Daejang. The Chulssincheon nominees tended to enter lower-ranked positions whereas the Namhangcheon nominees were more frequently appointed to higher military offices, revealing an evident disti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Notably, among the Namhangcheon nominees who had passed the military examination (133 individuals), 75.2% were appointed as Seonjeongwan and 76.7% served in Hunryeonwon; Dochongbu; or Jungchubu, indicating significantly higher advancement rates than the overall Seonjeongwan group. Those who served as Seonjeongwan or were in these central military institutions were 3–12% more likely to advance to other posts, achieving 15–40% higher rates than the overall Seonjeongwan average. While high-ranking officers, such as Susa, Byeongsa, Tongjesa, Tongoeosa, and Daejang, had lower military exam pass rates than the average for all the Seonjeongwan nominees, over 95% had served as Seonjeongwan or in central military agencies, a rate more than double of the overall average. This underscores that for Seonjeongwan nominees during the Yeongjo era, experience as Seonjeongwan or in Hunryeonwon; Dochongbu; or Jungchubu was a more critical factor for advancement to high-ranking military posts than merely passing the military examin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social origins and career trajectories of Seoncheon official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o elucidate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Seoncheon service, Seonjeongwan appointments, and related military offices, including Hunryeonwon, Dochongbu, and Jungchubu, within the bureaucratic framework of the Joseon dynasty in Korea.